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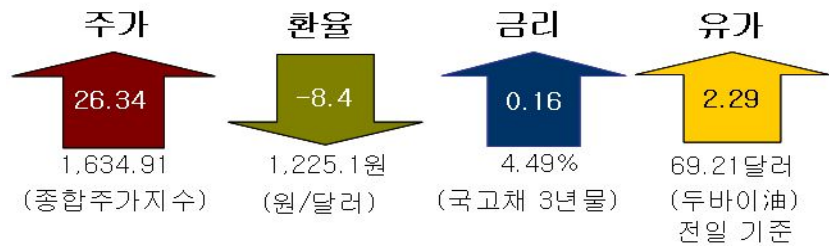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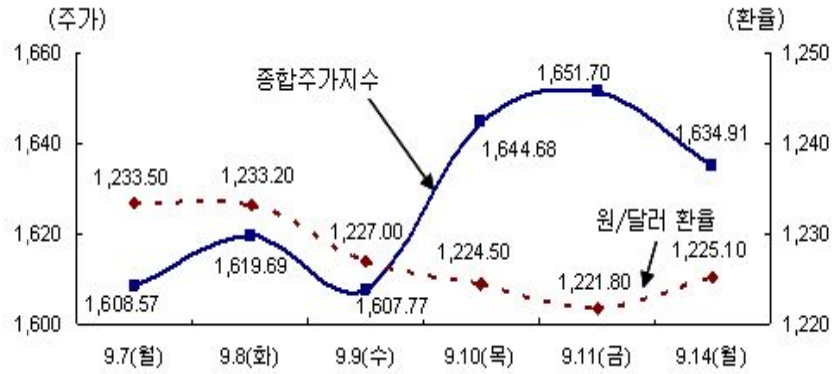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2009년 국내 경제 특징과 2010년 전망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7~9.1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09년 국내 경제 특징과 2010년 전망	1
주간 경제 동향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이 부 형 연구 위원 (3669-4011, lbh@hri.co.kr)
 : 현 석 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임 희 정 연구 위원 (3669-4031, limhj9@hri.co.kr) 외

Executive Summary

□ 2009년 국내 경제 특징과 2010년 전망

■ 2009년 국내 경제 특징

한국 경제는 2009년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특징들을 노출하였다. 경제성장률은 2009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4.2%에서 2/4분기에는 -2.2%로 하락세가 둔화되었다. 더욱이 현재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의 전환점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반전되어 있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 속에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첫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국 경제는 2009년 2/4분기 전기대비 2.6% 성장으로 플러스 전환되었는데, 이는 미국 -1.0%, 영국 -0.8%에 비하면 매우 빠른 회복세이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일본의 0.9%에 비해서도 꽤 정도 높은 수준이다. **둘째, 금융시장 안정 속에 자산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연초 급등하던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은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고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 **셋째, 실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는 부진 양상이 심화되었다.** 공업 생산, 소비재 판매, 건설기성과 같은 주요 실물 지표들이 7월에는 모두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설비투자추계의 경우, 지난 1/4분기 17.7% 감소에서 2/4분기에는 13.4% 감소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다 7월에는 다시 18.2% 감소하여 부진 양상이 심화된 것이다. **넷째,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었다.** 세계 경기 위축과 더불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감하는 가운데 수입 감소율이 수출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경상수지는 대폭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다섯째,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소득, 고용 등의 부문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여섯째, 가계 체감 경기가 부진하였다.** 거시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소득이 감소하면서 체감 경기는 부진세가 지속되었다.

■ 2010년 대외 경제 여건

선진국 경기 점진적 회복 : 미국을 비롯한 일본의 경우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나,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지역의 경우는 경기 개선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회복세가 미국과 일본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 경기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 :** 중국, 인도, 중동 등 개도국 경기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2010년에는 각각 8%대, 6%대 중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은 2010년에 주요 수출 상품인 석유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 완화 하에 원화 강세 :**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절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나 글로벌 달러의 약세 기조 완화,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절상 속도는 둔화될 전망으로 2009년 평균 1,289원에서 2010년에는 1,15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 2010년 들어 세계 각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부문별 경제 전망

2010년 한국 경제는 3% 후반 성장 예상 :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가 안정되면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0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1.0%에서 3.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회복세 전환 : 국내 소비는 2010년에 소비 심리 개선, 점진적 고용 회복,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3%대로 회복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미약한 회복세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환율 하락 등에 의한 투자 심리 개선 요인 이외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가 7% 내외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증가 속 부문별 차별화 :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 건설 경기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2010년에도 건설투자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건설투자는 2009년 3.0%에서 2010년에는 3%대 초반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 증가세 회복 속 경상수지 흑자 축소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이나, 그 규모는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226억 달러, 16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는 상승세로 반전 : 세계 경기 회복으로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부진 현상 개선 : 경기 회복 가시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증가 등으로 2010년에는 고용 부진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금리는 상승세 지속 : 경기회복 기대감과 자산 버블 가능성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시중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정책 과제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국내 경기 또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4%대 미만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신중한 출구전략,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정책 등이 필요하다. **첫째,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재정 정책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인해 경기 회복 기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유럽의 금융 혼란 가능성 등 2010년에도 경기 회복의 위협요인이 산재해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여 경기 회복 속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2009년에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투입 중심의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010년에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2011년 이후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신중한 금융 정책의 시행이 중요하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불안 요인 상존 등으로 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로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리인상은 세계적인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민간경제에 의해 자생적으로 국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세계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되는 것과 같은 조건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한편, 미시적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기반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가속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따르는 경쟁력 약화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및 신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녹색경제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차질없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내수 확충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육성전략 역시 본격화해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공기업의 중복 또는 과잉 투자 해소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조속한 민영화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고용을 승계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복지 관련 각종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2010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구 분		2008(P)	2009(E)			2010(E)	
			1/4분기	2/4분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2	-4.2 (0.1)	-2.2 (2.6)	-1.0	3.9	
	최종소비지출 (%)	1.6	-2.0	0.9	0.7	3.1	
	민간소비 (%)	0.9	-4.4	-0.8	-0.5	2.9	
	총고정자본형성 (%)	-1.7	-8.1	-2.7	-2.7	4.3	
	건설투자 (%)	-2.1	1.6	3.7	3.0	3.2	
	설비투자 (%)	-2.0	-23.5	-15.9	-12.0	7.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64.1	85.8	131.7	342.5	160
		무역수지 (억 \$)	-132.7	30.6	177.0	332.6	226
	통관기준	수출 (억 \$)	4,220.1	744.2	910.6	3,574.8	3,935.9
		증가율 (%)	(13.6)	(-25.2)	(-20.5)	(-15.3)	(10.1)
		수입 (억 \$)	4,352.7	713.6	733.6	3,242.2	3,709.9
		증가율 (%)	(22.0)	(-32.7)	(-36.1)	(-25.5)	(16.0)
소비자물가 (평균, %)		4.7	3.9	2.8	2.7	3.0	
실업률 (평균, %)		3.0	3.8	3.8	3.7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달러)		94.3	44.3	59.3	60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4	1,418.3	1,286.1	1,280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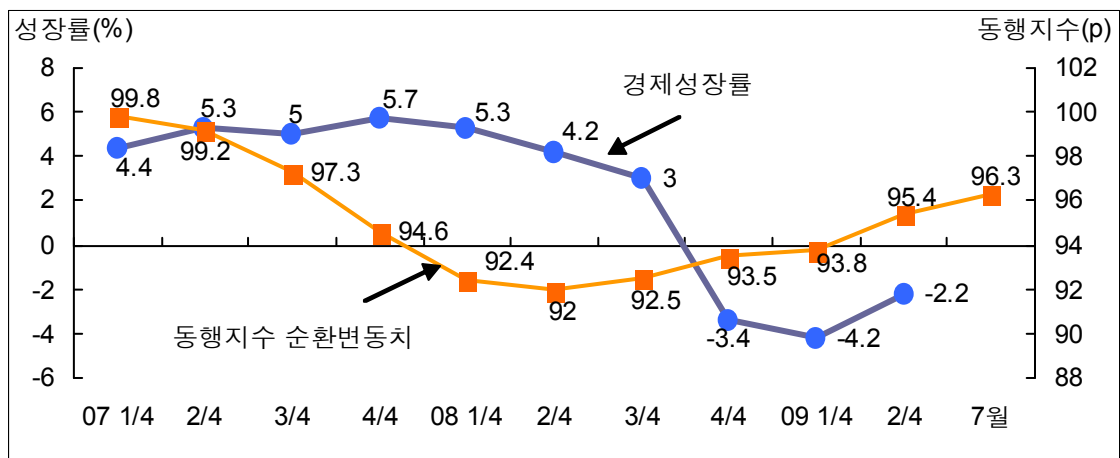
I. 2009년 국내 경제 평가

1. 현 경기 국면 판단

○ 국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

- 경기 회복 국면 진입 : 지난 2008년 4/4분기 -3.4%, 2009년 1/4분기 -4.2%, 2/4분기 -2.2%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률 감소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종합지수 상승 : 현재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의 전환점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반전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2월 92.0까지 하락한 후 3월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어 7월에는 96.3까지 상승
 - 한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경우 2009년 3월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4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4개월 연속 상승하여 7월에는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경기 지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월별 데이터임.

2. 2009년 국내 경제 특징

□ 선진국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 최근 한국 경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빠른 경기 회복 : 전기대비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리먼브라더스社 파산 이후 2009년 1/4분기에 전기대비 -5.1%까지 하락하였으나, 2/4분기에는 2.6%로 플러스 전환됨
- 2/4분기 성장률이 미국은 -1.0%, 영국은 -0.8%인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회복세이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일본의 0.9%에 비해서도 3배 정도 높은 수준임

<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

구분	리먼사태 직전 ('08.2/4분기)	2008년 리먼사태	리먼사태 이후 최저치	최근 데이터
미국	2.8	-0.5 ('08.3/4)	-6.4 ('09.1/4)	-1.0 ('09.2/4)
영국	0.0	0.0 ('08.3/4)	-1.9 ('09.1/4)	-0.8 ('09.2/4)
일본	-1.1	-1.0 ('08.3/4)	-3.5 ('08.4/4)	0.9 ('09.2/4)
한국	0.4	0.2 ('08.3/4)	-5.1 ('09.1/4)	2.6 ('09.2/4)

자료 : 한국은행, eurostat, BEA, 일본 내각부.

주 :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한국과 영국, 일본은 전기대비임.

- 금융시장도 가장 빠르게 개선 :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8월 31일 기준 136bp로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2008년 9월 12일 135)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여전히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주요국 CDS 프리미엄 추이 >

(bp)

구분	2008.9.12	2008년 리먼사태(9.15)	리먼사태 이후 최고치	최근 데이터(8.31)
영국	20.8	22.4	164.9(2009.2.24)	56.1
일본	15.9	16.8	117.9(2009.3.11)	37.1
중국	72	85	278(2008.10.27)	84
한국	135	158	699(2008.10.27)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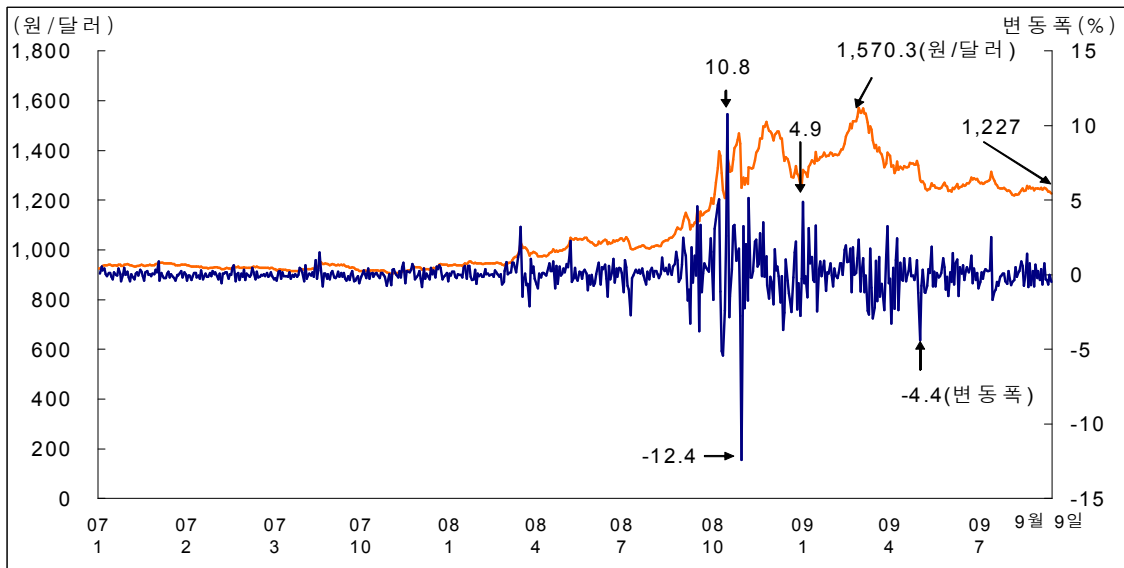
자료 : 국제금융센터, 블룸버그.

□ 금융시장 안정 속 자산가격 상승

○ 연초 급등하던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은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고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

- 외환시장 안정 : 2009년 초반에 급등했던 원화 환율이 지난 2009년 3월 9일 이후 하향 안정화되고, 변동 폭도 크게 하락
- 연초까지 급등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2일 1,570.3원/달러로 직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 지난 2009년 9월 9일에는 1,227원/달러까지 하락
- 원/달러 환율 일일 변동 폭도 높게는 4.9%(1월 2일)에서 낮게는 -4.4%(4월 30일) 수준까지 기록하였으나, 지난 8월 18일부터는 ±0%대로 안정

< 환율 및 환율 변동 폭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자산 가격 상승 : 한편, 주가가 급등하고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
- 2009년 3월 3일 1,025.57까지 하락했던 KOSPI 지수가 약 6개월 만인 9월 9일 1,607.77을 기록, 직전 최저치 대비 56.8% 상승
- 또,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도 지난 4월부터 전월대비 상승세로 반전된 후 8개월 연속 상승세에 있으며, 특히, 강남구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

□ 실물 경기 회복세 속 투자 침체

○ 실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는 부진 양상이 심화

- **실물 경기 회복세 지속** : 광공업 생산, 소비재 판매, 건설기성과 같은 주요 실물 지표들이 7월에는 모두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광공업 생산의 경우 지난 6월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다 7월에는 0.7%의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됨
 - 소비재 판매액의 경우는 신차 등록세 면제 등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5월부터 플러스 증가로 전환된 이후 7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
 - 건설기성도 지난 6월에 15.2%나 증가한 이후 7월에도 1.8% 증가하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

- **설비투자 회복 지연** :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1/4분기 17.7% 감소에서 2/4분기에는 13.4% 감소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다 7월에는 다시 18.2% 감소하여 부진 양상이 심화됨

< 주요 실물 지표 추이 >

(%)

구분	2009년				
	1/4분기	2/4분기	5월	6월	7월
광공업 생산	-15.5	-6.2	-9.0	-1.2	0.7
소비재 판매액	-4.9	1.6	1.6	7.5	1.9
건설기성	4.5	7.0	-0.7	15.2	1.8
설비투자추계	-17.7	-13.4	-16.2	-4.9	-18.2

자료 : 통계청, 「광공업생산통계」, 각호.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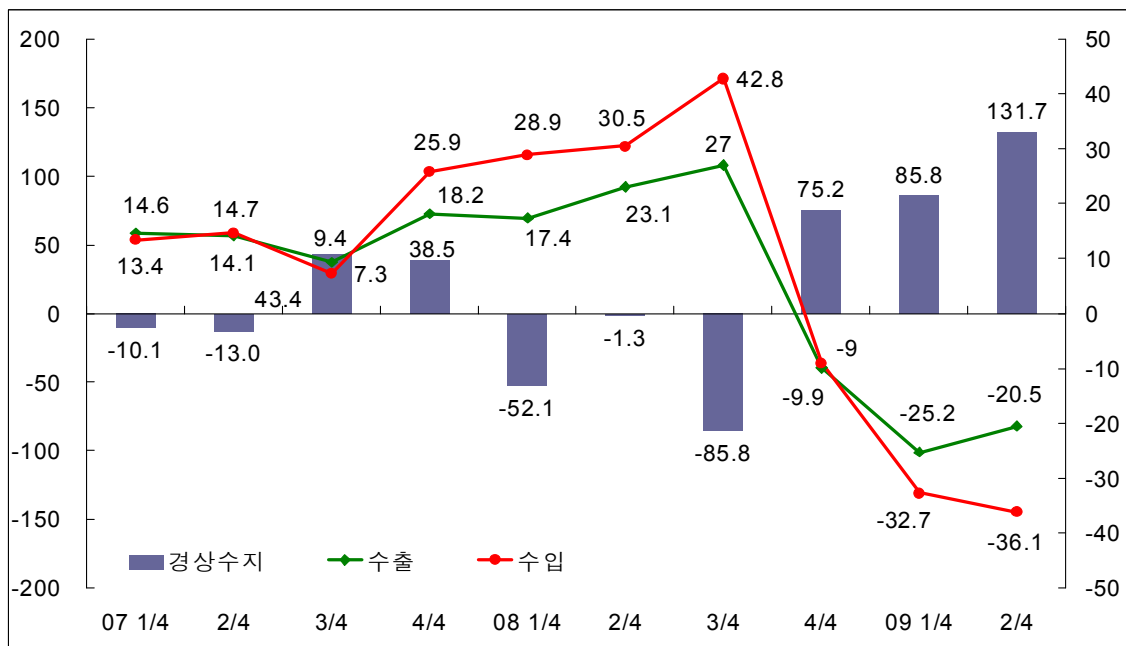
□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세계 경기 위축과 더불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감하는 가운데 수입 감소율이 수출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경상수지는 대폭 흑자를 기록

- 수출 감소를 능가하는 수입 감소 : 2009년 들어 수출 감소폭을 수입 감소폭이 뛰어 넘으면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2009년 들어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4분기 -25.2%, 2/4분기 -20.5%를 기록한데 반해 수입은 같은 기간에 -32.7%, -36.1%를 기록
 - 이처럼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지면서 무역수지는 1/4분기 30.6억 달러, 2/4분기 177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보임
- 경상수지 대폭 흑자 시현 : 이로 인해 경상수지도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
 - 2009년 들어 1/4분기 85.8억 달러, 2/4분기 131.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수출입 증가율 및 경상수지 흑자 추이 >

(단위 : 억 달러, %)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 경제 양극화 현상 심화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소득, 고용 등의 부문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

- **소득불균형 심화** : 소득 하위 20% 가구와 상위 20% 가구의 가계 수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계 수지도 하위 20% 가구는 적자를, 상위 20% 가구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화
- 도시근로자 가구 중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계 수지는 2009년 상반기 31만 3천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17만 4천원 적자보다 약 14만원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가구는 오히려 흑자가 약 5만 6천원 증가함

<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분위와 5분위 소득 및 지출 추이 >

(단위 : 명목, 원)

구분		2008년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1분위	소득	1,422,844	1,444,667	1,508,244	1,445,450	1,346,395	1,395,998
	가계지출	1,595,036	1,446,732	1,588,395	1,564,574	1,569,890	1,485,936
5분위	소득	8,070,046	7,304,813	7,822,957	7,505,629	8,204,391	7,045,643
	가계지출	5,320,395	4,886,122	5,095,571	4,754,073	5,227,664	4,798,127

자료 : 통계청.

- **고용 양극화** : 40대 이하 청장년층 고용은 축소된 반면 50세 이상 연령층 고용이 증가
- 청년층 신규 취업자 수는 2009년 1/4분기 14.7만 명, 2/4분기 13.4만 명, 7월 11.2만 명씩 감소하였으며, 30~39세의 경우 같은 기간 15.9만 명, 21.3만 명, 20.3만 명 감소함. 또, 40세 이상은 2/4분기 2.7만 명, 7월에는 6.9만 명 감소
- 반면, 50대는 2009년 1/4분기 19.3만 명, 2/4분기 29.5만 명, 7월 19.2만 명 증가하였으며,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2.3만 명, 4.9만 명, 8.7만 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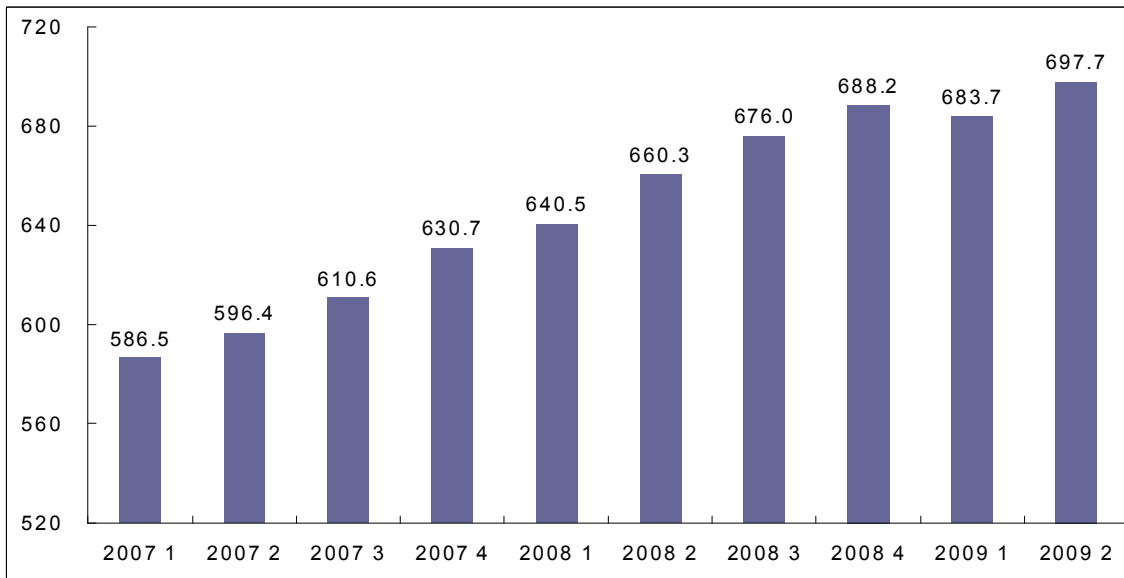
□ 가계 체감 경기 부진

○ 거시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소득이 감소하면서 체감 경기는 부진세 지속

- 가계부채 증가 :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확대
 -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08년 4/4분기 688.2조 원에서 2009년 1/4분기에 683.7조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697.7조 원 수준을 기록

< 가계부채 규모 추이 >

(단위 : 조 원, %)



자료 : 한국은행.

- 고용 부진세 지속 : 실업률이 상승하고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세 지속
 - 신규 취업자 수가 2009년 6월을 제외하고는 7월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7월까지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12.6만 명 감소
- 소득 감소 :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2009년 1/4분기에 0.7% 감소한데 이어 2/4분기에는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II. 2010년 대외 경제 여건 전망

1. 세계 경기

○ 선진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개도국 경기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교역량도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

- 선진국 경기 회복 가시화 : 미국을 비롯한 일본의 경우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나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이 기대됨
 - 유럽지역의 경우는 경기 개선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회복세가 미국과 일본보다 느릴 것으로 보임
- 개도국 경기 빠른 회복세 : 한편, 중국, 인도, 중동 등 개도국 경기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 인도의 경우,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2010년에는 각각 8%대, 6%대 중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임
 - 중동지역의 경우는 2010년에 주요 수출 상품인 석유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 세계 교역량 증가 : 2010년에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 경기의 회복에 의한 수요 증가로 세계 교역량도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됨

< IMF와 OECD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08년	OECD ('09년 6월)		IMF('09년 7월)	
		2009년(E)	2010년(E)	2009년(E)	2010년(E)
세계	3.1%	-2.2%	2.3%	-1.4%	2.5%
미국	0.4%	-2.8%	0.9%	-2.6%	0.8%
일본	-0.7%	-6.8%	0.7%	-6.0%	1.7%
유럽	0.7%	-4.8%	0.0%	-4.8%	-0.3%
신흥개도국	6.0%	-	-	1.5%	4.7%
중국	9.0%	7.7%	9.3%	7.5%	8.5%
인도	7.3%	5.9%	7.2%	5.4%	6.5%
중동	5.2%	-	-	2.0%	3.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09;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09.

< 세계 수출입 증감률 전망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세계	7.5%	7.0%	3.7%	3.5%	-9.7%	-7.7%	3.8%	4.1%	6.9%	7.2%
미국	8.4%	2.2%	6.2%	-3.5%	-9.2%	-9.6%	3.6%	5.0%	6.4%	7.7%
중국	19.5%	14.3%	11.5%	14.9%	-8.8%	-2.2%	6.0%	5.0%	9.6%	9.4%

자료 : World Bank.

2. 글로벌 달러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는 유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전될 예상
 - IMF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경우, 201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10년 플러스 성장이 예상
- 미국 경기 회복에 의한 금리 상승 가능성으로 엔화도 약세로 전환
 -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르는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경우, 엔캐리트레이드 등이 재개되어 엔화는 약세로 전환될 것임
- 위안화 강세 유지
 -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및 중국의 빠른 경제 회복(IMF 8.5% 전망) 등으로 위안화의 강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해외투자은행에 따르면 2010년 달러화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서 강세 기조를 나타낼 전망
 - 2009년 9월 11일 현재 엔/달러는 91엔, 달러/유로는 1.4570달러, 위안/달러는 6.83위안임
 - 2010년 엔/달러 환율은 평균 95~102엔, 달러/유로 환율은 1.41~1.44달러, 위안/달러는 6.20~6.70 위안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

	엔/달러			달러/유로			위안/달러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95.81	96.33	101.81	1.4425	1.4227	1.4150	6.20	6.76	6.70
최고	105.00	110.00	112.00	1.5000	1.5500	1.5500	6.87	6.86	6.83
최저	85.00	88.00	90.00	1.3000	1.2600	1.2100	6.70	6.65	6.50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13개 국제투자은행의 9월 2~7일 전망치를 이용.

○ 2010년 들어 세계 각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에 따르면 2009년 연간 기준 유가는 Dubai유 기준 배럴당 평균 59.8달러에서 2010년에는 평균 63.3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기준의 경우 Dubai유가는 2009년, 2010년 각각 연평균 64.8달러, 88.4달러로 예상됨
- 한편, 곡물, 원유, 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상품선물 시세를 나타내는 CRB지수 역시 2010년 상당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큼
- CRB지수는 2009년 1/4분기말 220.4에서 2009년 9월 11일 현재 251.1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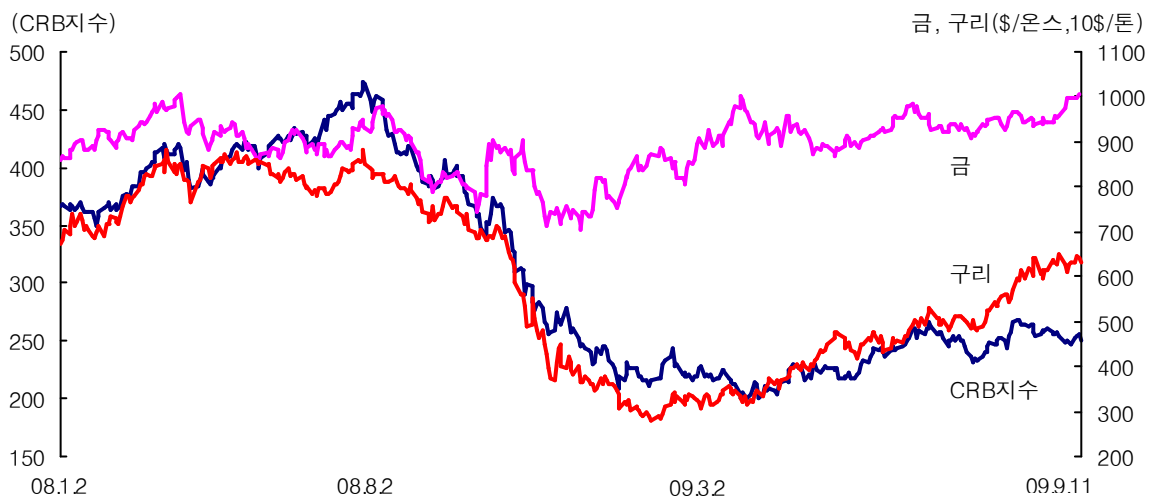
< CERA 유가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Dubai 유	고유가	93.6	44.9	59.2	75.0	80.0	64.8	88.4
	기준유가				66.1	69.0	59.8	63.3
	저유가				59.5	53.5	54.3	47.0
WTI 유	고유가	99.7	43.3	59.6	79.0	84.0	66.5	92.0
	기준유가				66.1	70.0	65.0	66.5
	저유가				59.0	55.0	54.2	47.0

자료 :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주 : 기간 중 일일 종가의 평균치이며, 전망시기는 2009년 8월 6일임.

<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



자료 : Reuter EconWins,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Ⅲ. 2010년 국내 경제 전망

1. 경제 성장 전망

○ 2010년 경제 전망의 전제 조건

- 세계 경기의 점진적 회복세 가시화 :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이 지속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 유가 :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 당 연평균 기준으로 2009년 60달러에서 2010년 85달러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절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나 글로벌 달러의 약세 기조 둔화,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절상 속도는 약화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2009년 평균 1,280원에서 2010년에는 1,15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상승할 전망

- 전망의 전제 조건들이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2009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의 -1.0%보다 상승한 3.9%가 될 전망
- 다만,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국 경기가 금융 불안 양상 재현, 자산 시장 과열 등으로 다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한국 경제 역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

2. 경제 부문별 전망

□ 소비는 3%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2009년 국내 소비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세가 약해짐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09년 1/4분기 -4.4%, 2/4분기 -0.8%를 기록
- 단, 소비재 판매 증가율은 2009년 1/4분기 -4.9%에서 2009년 2/4분기 1.6%로 다소 회복. 향후 소비 회복세 지속력을 판단할 수 있는 내구재 판매 증가율도 2009년 1/4분기 -13.6%에서 2009년 2/4분기 4.0%로 빠르게 회복

○ 국내 소비는 2010년에 소비 심리 개선, 점진적 고용 회복, 正의 자산효과,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소비 심리 개선 : 한국은행에서 매월 조사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009년 3월 84를 저점으로 상승하여 8월에는 114까지 상승하였으며, 향후경기전망CSI도 3월 64로 저점을 찍은 후 8월에는 125로 급등
- 점진적 고용 회복 기대 : 국내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정부의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확대 등으로 고용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임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009년 40만 명보다 15만 명가량 많은 55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
- 자산 가격 상승으로 正의 자산 효과 :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회복세 지속 등에 따르는 正의 자산 효과로 소비 여력이 증가
- 단, 최근 가계 부채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소비의 빠른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08년 4/4분기 688.2조 원에서 2009년 1/4분기에 683.7조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697.7조 원 수준을 기록

< 소비 부문 지표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연간	1/4분기	2/4분기	
최종소비지출	0.7	-1.9	0.9	3.1
민간소비	-0.5	-4.4	-0.8	2.9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8년 3/4분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설비투자 미약한 회복세로 전환

○ 2009년에 내·외수 침체가 지속되면 설비투자가 급랭

- 국민계정 상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9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23.5%를 기록한데 이어, 2/4분기에도 -15.9%를 기록

< 설비투자 및 설비투자 여건 지표 증감을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설비투자(국민계정)		-2.0	1.5	1.1	4.3	-14.0	-23.5	-15.9
선행 지표	설비투자조정압력	-1.9	5.1	2.8	0.3	-15.6	-18.9	-8.7
	국내기계수주	-12.8	22.7	-0.5	-15.2	-47.3	-33.8	-14.1
	자본재수입액	12.8	13.5	13.7	14.5	9.5	-29.6	-27.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주 : 설비투자 조정압력 = 제조업생산증가율 -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환율 하락 등에 의한 투자 심리 개선 요인 이외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수출 기업 채산성 및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선행지수가 부진한 양상이어서 설비투자가 7% 내외의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세계 경기 회복 : 국제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지속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투자 관련 규제 개선, 녹색뉴딜 실시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지속 추진 전망
- 환율 하락에 의한 수입 자본재 및 원자재 가격 하락 :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입 자본재와 원유 등 원자재 도입 비율을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
- 선행지표 개선 미흡 : 단, 선행지표인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이 2009년 1/4분기 -18.9%p에서 2009년 2/4분기 -8.7%p로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며,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도 2009년 1/4분기 -33.8%, 2/4분기 -14.1%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설비투자의 대폭적인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연간	1/4분기	2/4분기	
설비투자	-12.0	-23.5	-15.9	7.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9년 3/4분기 이후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건설투자 증가 속 부문별 차별화

○ 건설투자는 2009년에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투자로 다소 회복

- 국민계정 상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09년 1/4분기 1.6%, 2/4분기 3.7%로 증가세가 이어짐

< 건설투자 및 건설투자 여건 지표 증감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건설투자(국민계정)	-2.1	-1.9	-0.3	0.2	-5.6	1.6	3.7
선행 지표							
건설수주	-9.8	-3.7	-6.1	-22.7	-6.5	-16.5	-2.0
건축허가면적	-15.0	-8.3	3.9	-13.5	-41.9	-31.6	-32.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이지만, 선행지표 악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2010년에도 건설투자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임

- 정부 SOC 사업 적극 추진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 6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외의 SOC 투자도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정부 투자는 지속 증가할 것임
- 단, 선행지표 악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공급 과잉 상태 지속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제한을 받을 전망
 - 건축허가면적은 2009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31.6%에 이어 2/4분기에도 -32.7%로 악화되었으며, 건설수주 증가율 또한 2009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6.5%에 이어 2/4분기에도 -2.0%로 감소세가 지속
 -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부동산 버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지속으로 민간 부문의 부동산 경기 회복은 미약

< 건설투자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연간	1/4분기	2/4분기	
건설투자	3.0	1.6	3.7	3.2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9년 3/4분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수출 증가세 회복 속 경상수지 흑자 축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수출 감소율보다 수입 감소율이 커지면서 대규모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 2009년 1/4분기무역수지는 30억 달러, 2/4분기 177억 달러로 총 약 207억 달러의 흑자를 상반기에 달성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수출	422.0 (13.6)	99.4 (17.4)	114.5 (23.1)	115.0 (27.0)	93.1 (-9.9)	74.4 (-25.2)	91.1 (-20.5)
수입	435.3 (22.0)	106.1 (28.9)	114.8 (30.5)	122.9 (42.8)	91.5 (-9.0)	71.4 (-32.7)	73.4 (-36.1)
무역수지	-13.3	-6.7	-0.3	-7.9	1.6	3.0	17.7

자료 : 무역협회.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이나, 그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르는 수요 증가로 수출은 10%대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국내 내수 경기 회복, 원자재가 상승,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 등으로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따라서, 수출보다 빠른 수입 증가로 2010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226억 달러, 16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연간	1/4분기	2/4분기	
수출	3,574.8 (-15.3)	744.2 (-25.2)	910.6 (-20.5)	3,935.9 (10.1)
수입	3,242.2 (-25.5)	713.6 (-32.7)	733.6 (-36.1)	3,709.9 (16.0)
무역수지	332.6	30.6	177.0	226
경상수지	342.5	85.8	131.7	16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9년 3/4분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물가는 상승세로 만전

○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2009년 국내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

- 2008년 연간 4.7%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2009년 들어 세계 경기 침체로 국제 유가 및 국제 상품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2009년 들어 1/4분기 3.9%, 2/4분기 2.8%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
-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8년 4/4분기 5.4%에서 2009년 1/4분기 4.9%, 2/4분기 3.9%로 하락세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4/4분기 8.0%에서 2009년 1/4분기 4.2%, 2/4분기 -1.0%로 급락

< 주요 물가 지표 상승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소비자물가	4.7	3.8	4.8	5.5	4.5	3.9	2.8
근원물가	4.2	3.0	3.9	4.8	5.4	4.9	3.9
수입물가	36.1	23.9	41.6	45.3	33.6	15.0	-9.5
생산자물가	8.6	5.1	9.0	12.1	8.0	4.2	-1.0
생활물가	5.4	4.9	6.0	6.5	4.0	3.0	1.8

자료 :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회복으로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10년에는 세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수요 압력을 가중,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국내 경기도 수출 경기 회복에 이어 내수가 살아나면서 국내 수요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4.7%에서 2009년 2.7%로 다소 하락하다가 2010년에는 3.0%대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고용 부진 현상 개선

○ 2009년에 경기 부진에 의한 신규 고용 감소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함

- 고용 부진 심각 : 청년층 신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신규 취업자 수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등 고용 부진이 심각함
 - 2009년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동기대비 1/4분기에 14.7만 명 감소, 2/4분기에 13.4만 명 감소, 1~7월 평균 만 12.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2009년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전년동기대비 1/4분기에 21.2만 명 감소, 2/4분기에 9.9만 명 감소, 7월에도 11.2만 명 감소
- 실업률 상승 : 신규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실업률은 2008년 2.5% 수준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모두 3.8%로 상승하였으며, 7월에도 3.7%의 높은 수준 유지

< 주요 고용 지표 추이 >

구 분	2008					2009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7월
전체 취업자 증가 수(만 명)	24.7	21.0	17.3	35.7	24.6	-14.7	-13.4	-7.6
청년층(15~29세, 만 명)	-11.9	-10.7	-8.7	-11.4	-16.6	-21.1	-9.9	-11.2
고령자(60세~, 만 명)	1.8	1.5	-2.4	3.0	5.0	2.3	4.9	8.7
실업률 (%)	3.5	3.4	3.1	3.9	3.7	3.8	3.8	3.7
고용률 (%)	59.8	58.5	60.4	59.8	60.4	57.4	59.3	59.4

자료 : 통계청.

주 :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

○ 경기 회복 가시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증가 등으로 2010년에는 고용 부진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 증가로 수출 기업들의 고용 창출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경기도 내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전체 고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기획재정부에 따르는 2010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약 55만 명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2009년보다 15만 명 증가한 수준

□ 시중금리는 상승세 지속

○ 2009년에 낮은 기준 금리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6월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09년 초 3.42%로 시작하였으나, 안전자산 선호 경향 완화에 따른 국채수요 감소,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9월 11일 현재 4.49%를 기록

○ 2010년에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자산 버블 가능성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시중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

· 부동산가격의 빠른 오름세 등으로 향후 기준금리는 인상되겠지만, 가계 부채 증가,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금융완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상폭은 제한될 것임

- 따라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09년 9월 11일 현재까지 평균 3.92%에서 2010년에는 4.5%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고채 금리 추이 >

(평균, %)

구 분	2008	2009			2010
		1/4분기	2/4분기	1월~9월11일 평균	
국고채(3년)	5.27	3.64	3.90	3.92	4.5

주 : 2009년 연평균과 2010년 금리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임.

<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

구 분		2008(P)	2009(E)			2010(E)	
			1/4분기	2/4분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2	-4.2 (0.1)	-2.2 (2.6)	-1.0	3.9	
	최종소비지출 (%)	1.6	-2.0	0.9	0.7	3.1	
	민간소비 (%)	0.9	-4.4	-0.8	-0.5	2.9	
	총고정자본형성 (%)	-1.7	-8.1	-2.7	-2.7	4.3	
	건설투자 (%)	-2.1	1.6	3.7	3.0	3.2	
	설비투자 (%)	-2.0	-23.5	-15.9	-12.0	7.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64.1	85.8	131.7	342.5	160
		무역수지 (억 \$)	-132.7	30.6	177.0	332.6	226
		수출 (억 \$)	4,220.1 (13.6)	744.2 (-25.2)	910.6 (-20.5)	3,574.8 (-15.3)	3,935.9 (10.1)
		증가율 (%)					
		수입 (억 \$)	4,352.7 (22.0)	713.6 (-32.7)	733.6 (-36.1)	3,242.2 (-25.5)	3,709.9 (16.0)
증가율 (%)							
소비자물가 (평균, %)		4.7	3.9	2.8	2.7	3.0	
실업률 (평균, %)		3.0	3.8	3.8	3.7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달러)		94.3	44.3	59.3	60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4	1,418.3	1,286.1	1,280	1,150	

IV. 시사점 및 과제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국내 경기 또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4%대 미만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거시적으로는 신중한 출구전략,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정책 등이 필요함

- 신중한 출구전략 : 최근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재정 정책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인해 경기 회복 기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 :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유럽의 금융 혼란 가능성 등 2010년에도 경기 회복의 위협요인이 산재해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여 경기 회복 속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단, 2009년에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투입 중심의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010년에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2011년 이후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정책의 시행 :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불안 요인 상존 등으로 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로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우선 금융 안정성 제고를 통해 경기 회복세 지속 기반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 불안 등 금융 완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특히, 금리인상은 세계적인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 주체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국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세계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되는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 한편, 미시적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구조조정 지속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녹색뉴딜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 가속 : 2010년에도 빠른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정부 투자의 순조로운 진행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임
 - 한편,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등 각종 투자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환경 부담금 등 신규투자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기한 연기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함
- 산업 경쟁력 강화 :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따르는 경쟁력 약화를 예방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및 신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녹색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차질없는 발굴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
 - 아울러 내수 확충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육성전략 역시 본격화해야 함
-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 공기업의 중복 또는 과잉 투자 해소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조속한 민영화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양극화 현상 심화 대응
 -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고용을 승계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복지 관련 각종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7	2.1	0.4	-0.7	1.5	-2.7	-5.4	-6.4	-1.0	-2.6
EU	2.9	2.7	0.7	0.7	-0.3	-0.4	-1.8	-2.5	-0.1	-4.8
일본	2.0	2.3	-0.7	4.0	-4.3	-3.9	-13.1	-11.7	3.7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2	-3.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 7일	9월 14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44	3.32	-0.12%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93.02	90.33	-2.69¥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4338	1.4592	0.0254\$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9,441	9,605	164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10,321	10,202	-11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33	4.50	0.17%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33.5	1,225.1	-8.4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608.6	1,634.9	26.3p

주 : 9월 14일 해외 지표는 전일(9월 11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 7일	9월 14일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67.96	69.22	1.26\$
	Dubai	89.30	36.45	46.80	71.85	66.92	69.21	2.29\$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47.58	251.12	3.5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